



일본성마리아 병원 연수기(1차)

-성마리아 병원을 다녀와서-

최 영 자

(부산, 성분도병원)

떠나기 며칠 전부터 하던 일을 정리하라, 준비하라 괜히 마음만 바빴는데, 비행기를 타고 나서야 차라리 편안해졌다. 간호사 8명으로 구성된 이번 연수생은 10월 12일 부산에서 출발하는 대구와 마산의 일행을 만나 김해공항을 출발하여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여 만나기로 되어 있는 서울에서 먼저 출발하는 일행을 살펴봤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대신 성마리아 병원에서 Volunteer로 일하고 계시는 이께다(제일동포) 선생님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준비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바라 본 창밖의 풍경은 나즈막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마치 내 고향 제주도과 닮아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길가에 곧게 뻗어있는 스키 나무와 일본 특유의 집들 그리고 조그마한 자동차들……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나무 한 그루를 베면 후손을 위해 꼭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떠올랐다. 어릴 때부터 세계여행과 연수 기회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절대 속마음을 내 비추지 않는 그들, 몸에 배인 친절…… 알고 있었던 것들이지만 나의 뇌리에서 떨쳐지지 않는 가깝고도 먼 일본과 과연 어떻게 친해져야 될 것인지, 기무치가 아닌 김치의 맛, 가방 깊숙이 가득 담아 온 고추장의 맛 이런 것들과 잘 어울려야 할텐데…… 하는 생각을 하다보니 성마리아 병원의 기숙사인 마리안 하

우스 입구에 버스는 도착해 있었다.

5년전 병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본여행 길에 이곳 성마리아 병원을 들렀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의 그 행정담당 여직원이 우리 일행들에게 세심한 주의사항과 함께 전반적인 일정과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주었다.

성마리아 병원은 '가톨릭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3년 구루메시의 소아과 의원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총 1,338 병상의 16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곳이었다. 한 개인의 신념과 의지로 이렇게 큰 병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존경스러웠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정말 선진국이구나, 잘 사는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한 생각은 마침 그 병원에서 사랑하는 가정방문간호에 동행하여 일본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노인을 위하여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한 난간과 가구의 편리한 배치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사회복지 제도가 뒷바침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조금은 씩씩한 느낌마저도 들었다.

호스피스 병동은 마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안정된 분위기와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었고, 환자 우선 중심의 모든 편의시설, 교양 오락시설까지 갖춘 깨끗한 건물이었다. 이러한 시설들을 보면서 정말 말기환자의 마음의 안식을 주고 증상완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92년부터 시작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간호 사업은 간호사, 보건간호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로 구성되며, 1회 방문시 250엔+교통비가 가족에게 청구되고 그 외의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정간호 사업도 하루 빨리 적절한 방법으로 제도화되고 정착되어 현대 의료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 중 고령화 시대에 걸 맞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제공을 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연수기간 동안 병원 전체 분위기는 너무나 조용했으며, 환자 우선이라는 마음, 작은 공간 하나, 안내문 한 구절에도 그들의 친절함과 경제성을 읽을 수 있었다.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받던 날 연수 일행들과 연수담당 간호부장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려오는데, 3층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앞에는 휠체어에 앉은 환자와 동행한 직원이 서 있었는데 간호부장이 먼저 내리면서 우리 일행들에게는 걸어서 내려가자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환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후로 근무시간에 어찌다 그와 같은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곤 한다.

또한 연수기간 동안 참고하기 위해 자

료가 될만한 것들을 찍고 싶었지만,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인간성 존중과 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었다. 병원의 규모는 8개의 동(棟)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거대한 빌딩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50Km 반경내의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어서 병상 수에 비해 외래진료 환자보다 응급입원 환자가 더 많았으며, 주목할 만한 것은 후쿠오카 지역의 병원에는 아직 신장이식을 하는 곳이 없어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환자가 많았다. 성마리아 병원의 경우 하루평균 70-75명의 환자가 혈액투석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의료진들이 환자를 위하여 어떤 시술을 하다가 실패하여 다시 시행할 때 사용되는 의료기구나 관련 약제들에 대하여 의료보험 담당 기관에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삭감'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연수기간 동안 지난번 연수팀들과 비슷한 코스로 여행을 하였고, 일요일에는 특별히 병원에서 마련해 준 버스를 타고 구루메시에 있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 후 후쿠오카 시내 튜어를 하였다.

연수 평가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우리 모두는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들의 습성인 친절함 그리고 일본인 특유의 근면함과 검소함 등은 이미 듣고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끝으로 금번 연수를 위해 애써 주신 대한가톨릭병원협회와 저희 병원장님과 간호부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